# 담양군-필리핀 딸락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MOU 등 연간 250여 명 도입…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노력

## "경영환경 안정·농업 지속가능성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 기대"

담양군은 지난 22일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딸락주(州)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 수잔 얍 술리트 딸락주지사, 지나 아르세날 가르시아 행정관 등 5명, 담양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딸락주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농업 분야 교육을 진행, 담양 농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양군은 필리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시설원예 재배요령 등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협약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환경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리핀 딸락주와 농업교류 이외에도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계획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내년에 준공되면 근로자들의 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농업 현장의 작업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군에서는 MOU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등 연간 2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담양에서 근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김한종 장성군수(앞줄 가운데)가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수당' 지급을 21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사진=장성군 제공)

## 장성군 '청소년 수당' 지급…민선 8기 공약 이행

### 9~18세 청소년 연간 1회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지원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의 민선 8기 역점 공약인 '청소년 수당' 지급이 이행됐다.

장성군은 지난 21일부터 청소년 수당 지급을 위한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지원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수당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9~18세 청소년에게 문화·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연간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9~13세는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에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관내 문구점, 안경점, 교복 판매점, 서점, 독서실, 예체능 분야 학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관련 학원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바우처카드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20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장성군은 오는 10월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남은 포인트와 사용 내역, 등록 가맹점 정보 등은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누리집( https://jangseong.dvou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 또는 바우처카드 뒷면의 큐알(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누리집 주소를 알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바우처카드가 장성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해 가는 여정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우처카드 이용 문의는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061-390-7417)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 나주 농산물 가공업체, 국내 대형 유통사와 손잡는다

###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서 '입점 결정' 37건, '적극 검토' 40건 쾌거

나주 지역 우수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들이 국내 대형 유통사에 대거 입점하게 되면서 판로 확보 및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나주시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에서 총 157건의 상담 중 37건이 대형 유통사에 입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입점 '적극 검토'도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즙, 찰보리빵, 숙성홍어회, 곱창김, 누룽지칩, 식혜류 등 나주지역 우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30개 업체가 60여 개의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GS홈쇼핑,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우체국쇼핑, 11번가, 티몬, Y-MART 등 13개 국내 대형 유통사의 상품기획자(MD) 20명이 참석했으며, 유통사별 입점 지원 및 상품 문제점, 개선점 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업체당 5회 이상 1:1 맞춤형 유통 전문 상담과 상품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가공업체 관계자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품들을 정성껏 만들었지만 정작 판매처를 찾기 힘들었다"며 "국내 대표 유통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돼 특히 기쁘다"고 전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곡성군 압록 참게·은어거리 상인회, 남도음식 홍보 앞장

곡성군이 지난 20일 압록 참게·은어거리 상인회의 13개소 영업주들이 참여해 청소 및 경관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압록 참게·은어거리 상인회는 관광객들에게 곡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은 2016년에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오곡면 압록리 일원 1.6km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환경정비와 거리공원 조성, 참게·은어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사업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조형물과 공원의 노후화로 인해 홍보 효과가 점차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압록 참게·은어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정비하며 추가로 홍보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군과 상인회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 음식점 영업주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압록 참게·은어거리의 홍보와 '깨끗한 곡성, 맛있는 곡성'이라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압록 참게·은어거리 식당 영업주 A씨는"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압록 참게·은어 거리 홍보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압록 참게·은어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